



무안 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중산단은 법정자본금 확보와 개발계획의 중도위 통과에 이어, 내년 1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무안기업도시 개발 대상지인 무안읍과 청계·현경·망운면 일원.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 차이나 시티·국제대학·도매 유통단지 등 한·중 최대 경협지구로 조성

## ■ 무안 기업도시 향후 개발방향과 과제

### 2012년까지 3조2천억 투자 읍·청계·망운면 일대 개발

무안 기업도시가 한·중 교역과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무안 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지난달 법정자본금을 모두 확보,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무안 기업도시에는 무안읍과 청계·현경·망운면 일대(32.95km)에 오는 2012년까지 총 3조 2천385억원을 투자해 10만8천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자족형도시로 조성되며, 한중국제산업단지와 국내산업단지로 나눠 개발되고 있다.

이중 한중산단은 이번 중도위 통과로 인해 빠르면 내년 초 보상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국내산단은 건설투자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추가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한중산단의 성공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산단은 그 파급효과로 인해 중국이나 국내 대기업의 투자 유인이 쉬워져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상태다.

무안 기업도시의 개발 방향과 향후 과제 등을 정리한다.

◇**한중국제산업단지**=무안읍과 청계·현경면 일대(17.7km)에 1조 6천 921억원을 투입해 한중 수교 이후 최대의 경제협력지구로 조성된다.

한중산단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중국 산동성 단지와 중경

시 단지, 차이나 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을 주요 시설로 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 계획이다. 이중 차이나 시티는 소수민속촌과 테마파크 등 다양한 중국의 문화요소를 접목한 무역·금융·문화 등 복합기능의 상업도시로 조성되고,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항공물류와 목포 신외항을 이용한 해상 물류, 임대형 공장을 갖춘 세계 최대 도매유통단지가 들어선다.

한중산단은 지난 2005년 12월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을 설립해 2007년 1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 투자승인을 얻어낸 데 이어, 같은 해 중국 상무부로부터 해외경제무역협약기구로 지정받아 중국과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산업단지로 건설된다.

무안군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한중산단 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이후, 3개월만인 10월30일 중도위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초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보상물건 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출자자 지분은 중국측이 51%, 국내가 49%이다. 출자 기업으로는 중국의 지산그룹·광화그룹, 한국측은 두산중공업·백산·농협·우리은행·다울부동산·NH증권·무안군·전남개발공사 등이다.

출자자들의 납입자본금은 총 1천 528억원으로 당초 모두 납입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중국측 외화 자본 중 68억원의 감소분이 발생했다. 중국측이 곧바로 68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무안 기업도시 한중산단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해외자본유치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18개 '해외경제무역협약구'중 유일하게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권의 경제협력구라는 점에서 그 어떤 기업도시 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산업단지**=무안 현경·망운면(15.25km) 일대에 1조 5천400억원을 들여 국내 첨단산업단지와 물류단지, 통합과학단지 등을 조성해 5만3천명이 거주하는 미래 첨단산업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프라임개발과 쌍용건설, 동아건설, 농협, NH증권 등이며 총 납입자본금은 1천340억원이다.

그러나 국내산단은 건설투자 주관사인 프라임개발이 올 초 무안군과 투자 주관사 대체에 합의, 추가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라임개발은 출자분담액 297억원 중 지난 해 5월 200억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추가 출자를 포기했으며, 다른 참가 기업들의 출자도 거의 없어 총 납입금 1천340억원 중 375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국내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1천34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 금융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저조한 납입액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산단 개발 계획이 중도위 통과를 계기로 가속도를 내면서 그 파급효과가 국내산단 조성에도 미

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산단에 참여 중인 중국의 광화그룹과 지산그룹은 물론 산동성에 기반을 둔 중국 기업들이 국내산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한중산단의 조성 상황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기고

### 한·중 국제산단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서삼석 (무안군수)

2005년 7월 8일 무안군이 국가 지정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시범 선정된 이후 무안의 새로운 미래인 국제산업도시 건설의 대장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섰다.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많은 시련과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여의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지원해주신 무안군민의 성원이 없었다면 이 같은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에 출자를 결정해 준 참여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군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경의를 드린다.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만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정확히 홍보가

고 왕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중국정부로부터 6억불 투자승인을 받았고, 중국 상무부가 주도하여 해외에 중국기업의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해외경제협약구'로 지정됨으로써 중국기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무안에 진출하는 기업은 중국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차 기업 유치 여건까지 마련된 것이다.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단순한 민간 자본유치가 아니라, 51%가 중국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중국제산단 개발사업은 내년 초 승인 후 보상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무안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 ■ 무안 기업도시 추진 배경

기업도시는 지난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도요타 시(市)나 핀란드의 울루 시와 같은 '기업 특화 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공론화됐다.

산업 입지부터 제품생산까지 원스톱으로 추진되는 특구이며, 경제활동은 물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다. 생산 기능 위주의 산업단지 와 달리 민간 기업이 개발 주체가 된다.

정부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

지만 이듬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 사업목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행정 중심복합도시 인접지역과 당진 등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 일부 도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공직자들 혼연일체, 두산重 '전격 투자' 이끌어 내

### ■ 무안 한·중국제산단 중도위 통과 뒷얘기

#### 올 초 2대 대기업 출자 포기, 한 때 좌초 위기

무안 기업도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따라 무안군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 국내 지분(49%) 가운데 건설 지분 17.87% 중 13.61%에 대한 납입자본금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서군수를 비롯한 투자유치 담당 직원들은 서울에 살다시피 하며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두산그룹은 올 연말까지 모든 직접 투자를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결국 두산은 13.61%의 지분 참여를 결정, 185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함에 따라 총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돼 개발계획이 중도위를 통과하게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이 과정에서 무안군 직원들은 두산중공업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두산베어즈와 기아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수백명이 '두산중공업 투자, 무안기업도시 흥'을 외치며 '두산 화이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두산 그룹 소속 핸드볼팀의 경기가 지역에서 열릴 때도 어김없이 따라가 응원을 벌였다.

무안군은 한중산단에 이미 중국을 비롯한 참여기업들이 모두 자본금을 납입한 상태로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며, 전남권에 연고가 없는 두산중공업이 무안에 투자하기를 지역민들이 열원하고 있다는 논리로 설득을 계속했다.

# 의·치의학/약학

##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개강 1월 2일

###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b>일반생물</b> 김영민 교수 연세대학교	<b>일반생물</b> 황세연 교수 연세대학교	<b>유기화학</b> 최용성 교수 연세대학교
<b>일반물리</b> 박종기 교수 연세대학교	<b>영어수론</b> 장영문 교수 연세대학교	<b>이산 FEPS</b> 서정환 교수 연세대학교

<b>전남대, 조선대, 전북대</b> 의(醫)학원
--------------------------------

# MDPass 의(醫)학원

문의 263-5453 (북구정 맞은편) | 전화 255-9119 (전북대 병원 앞)

# 서울고시학원

www.gosi.ac.kr | 514-4560